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가처분 신청 기각따라 결정
환경권·안전성 확보 없인
발전소 가동 금지 원칙 유지
공론화위 구성 해결책 모색
범시민대책위는 반발



나주시가 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열병합 발전소의 건축물 사용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주시가 지역 최대현안인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 26일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건축물 사용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혁신도시의 열 공급을 위해 2700억원을 들여 LNG 및 SRF 열병합 발전소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 20일부터 시험가동 뒤 올해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SRF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나주시가 시민의 환경권 문제 등을 들어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아 6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나주시는 이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승인 배경과 향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지난 5월 14일 광주 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토대로 범불자문과 함께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다"며 "법률적으로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인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의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갈 방침이다.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도 계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6일 시장실을 찾아가 3시간 넘게 강인규 시장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회피한

채 나주시민에 건강권을 포기하고 승인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는 "하루 쓰레기 소각량 444t 중에서 400여t이 다른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라며 "매일 444t에 달하는 엄청난 양에 쓰레기를 태우게 된다면 11만여 나주시민들에 건강은 무참히 짓밟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나주시가 시민들에 건강권을 위해서 항소를 했어야 하는데 손해배상 부담 등을 이유로 포기를 해버렸다"며 "시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지만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인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고형연료사용신고가 신고사항으로 되

어 있어서 시가 가동을 막는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형연료 사용신고건'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 제시와 보안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시는 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 조사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SRF 열병합 발전소 건축 승인을 지연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 에너지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배전기능 양성과정 19명 수료
10명 연관 기업 조기 취업

전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교육을 진행했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배전기능 양성과정' 수료식을 함평군 한국전력 인증기관인 한일전기기술학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전기능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배전기능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청년인력 진입을 촉진하고 한국전력 및 혁신산단 등 연관기업에 우수 전문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실습 중심의 배

기업의 조기취업에 성공했으며 15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총 1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재승 나주시 일자리정책실장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전문 업종에 진출하게 된 교육 수료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전문양성교육으로 지역기업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 25일 함평군 한국전력 인증기관인 한일전기기술학원에서 배전기능양성과정 참가자들이 수료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주시 제공>

2018 지역공예·문화상품 공모전 지원 사업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선정

상금 5000만원 지원 받아

흥원으로부터 상금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강인규)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18 지역공예·문화상품 공모전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지역공예·문화상품 공모전 지원 사업'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지역 특화형 공예품 제작과 문화상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공모전에 대해 평가를 거쳐 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이 이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모전으로 천연염색디자인자들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은 이번엔 '지역공예·문화상품 공모전 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공모전의 위상 향상과 함께 응모자들로부터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민선 7기 강인규 나주시장 내달 2일 취임식

민선 7기 강인규 나주시장 취임식이 다음달 2일 나주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나주시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나주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민선 7기 시장 출범을 알리는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강 시장의 평소 시장 철학을 반영해 민선 7기 공약과 비전을 시민과 대화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된다.

취임식에는 민선 7기 7대 공약과 공약에 대한 시민 7명의 희망과 바람을 담은 특별 영상을 통해 열린 취임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강인규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재인

정부의 23개 국정과제 실현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분야 선점 ▲혁신도시 시즈2 운영전략 수립 ▲지방분권정책 대비 ▲SRF 열병합발전소 등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인규 시장은 정부 국정과제 선제적 대응과 민선 7기 7대 공약 실현을 위한 울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 1개급 신설 등 맞춤형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를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소중한 명령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다가올 민선 7기 시정에 모든 역량을 다해 위대하고 정의롭고 당당한 나주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다중 이용 생활권 녹지 건강하고 쾌적하게

나주시, 산림 병해충 예방 위해 8월말까지 수목 진료

예찰 조사 활동도 강화

나주시는 지역 아파트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 생활권에 조성된 녹지에 대한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수목진료를 집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산림병해충 발생지에 대한 피해진단 및 처방전 발급을 통해 주민을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해갈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생활권 녹지 20개소를 선정하고 나무병원의 전

문 진료를 통해 해당 수목의 정확한 피해 상황과 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맞춤형 방제와 관리방법을 안내해 지역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또 산림병해충 발생 집중기간 예찰 조사를 강화해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숲과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숲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http://www.mde.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